

잡아함29 설법사

날짜: 11월 25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91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삼밀리제(三蜜離提)라는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쭙었다.

“세존께서는 설법사(說法師)를 말씀하시는데, 어떤 이를 설법사(說法師)라 합니까?”

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.

“네가 지금 설법사의 뜻을 알고싶으냐?”

“그렇습니다. 세존이시여.”

“비구야,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.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. 만일 비구가 색(色)에 대해서 ‘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, 탐욕을 떠나서, 모든 번뇌를 다 한다’고 설명한다면, 이런 이를 이름하여 설법사라 한다.

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‘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, 탐욕을 떠나서, 모든 번뇌를 다 한다’고 설명한다면, 이런 이를 이름하여 설법사(說法師)라 하느니라.”

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